

전염병 앞에서 각 국가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 했는가 ?

4월 8일까지 이미 25 개 국가에서 전체 혹은 대부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월세, 물 / 전기세, 학비 등을 면제했다.

4월 8일까지, 무한 폐렴 전염병 앞에서 이미 25 개 국가에서 전체 혹은 대부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방세, 물 / 전기세, 학비 등을 면제했다.

미국: 3월 28일, 2.2 만억 달러 고액수의 구조 법안을 결의했다. 이는 미국 최근 역사상 가장 고액수의 경제법안이다.

그 중 매개 납세가정에 현금지원도 포함된다. 년 수입이 7.5 만 달러 미만인 미국 국민은 1200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각각 7.5 만 달러 미만이면 2400 달러를 받을 수 있고; 한 가정의 아이들도 각각 500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이 닥쳐오자 미국은 로인과 아이들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 학교는 비록 문을 닫았으나 18 세 이하의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면비로 예전과 똑같이 아침, 점심밥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820 억 캐나다달러의 긴급 원조 계획을 세우고; **영국**: 3300 억 파운드를 지급했고; **프랑스**: 450 억 유로를 지원했고; **일본**: 수입이 대폭으로 줄어든 가정마다 20~30 만원 (약 인민폐 2 만원) 의 현금을 지급 할 예정이며; **대만**: 10 억 타이완달러를 월급없이 휴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매개 국가는 수입이 없는 가정마다 구제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할



4월 10일, 국무원 렴방련공기구는 뉴스 발표회를 열어 전염병 기간 곤란한 단체의 정책 보장공작을 완선 (完善) 하는 것에 대해 소개했다. 민정부 사회구조사 일급 순시원 인페이창 (伊佩庄) 은 현재까지 이미 6155.3 만 곤란한 민중에게 18.8 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 중 호북성에 4.4 억원의 보조금을 발급했으며 평균 매 사람마다 받은 금액은 120 원 표준 이라고 소개했다.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이하 중공이라 함) 국은 봉쇄로 인해 집에 갇혀 출근할 수 없게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마련해 주었는가? 수억명의 민공은 몇 달간 수입이 끊겼지만 중공은 그들에게 단 1 전이라도 지원해 주었는가? 실업자들은 단 1 전의 실업 보조금이라도 받았는가? 몇 명이나 월세를 면제 받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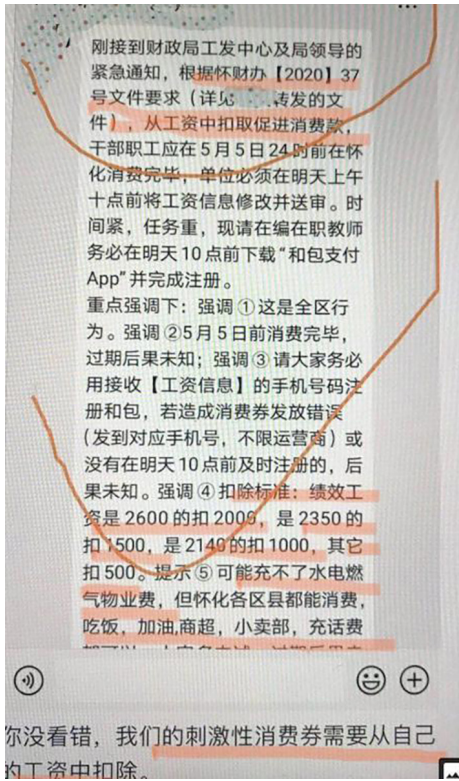
세계 각 국에서 국민을 구제하려고 대책을 마련할때 중공도 어쩔수없이 형식적으로 따라 했다. 4월 10일, 대륙 매체에서 중공민정부는 전국 6155.3 만 명 어려운 민중에게 18.8 억원을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한 세심한 네티즌이 계산해 봤는데 6155.3 만 명을 상대로 18.8 억원을 지원한다면 평균 매 사람에게 차려지는 금액은 30.54 원 이다. 한 평론에서 “보조발급의 목적은 선전하기 위해서이니 진짜로 여기지 말라.”고 표시했다.

어떤이는 중공을 위해 변명했다: 중국에는 14 억의 인구가 있기에 그 누구를 따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또 네티즌은 질의를 했다: 마찬가지로 14 억 인구의 납세액도 천문 수자가 아닌가? “민중한테서 가질 때” 는 많다고 여기지 않더니 “민중에게 쓸때” 는 많다고 하는가?

무한 페럼에서 “돈 강탈”식의 정책을 말해보자

정부는 직공의 월급에서 “소비 촉진비”를 잘라내 강제로 소비하게 하는 것은 “돈 강탈”과 다를바가 없다.



인터넷에 떠도는 “회화시는 교사 월급에서 소비 촉진금액을 잘라내라고 요구했다”는 웨이신(微信) 캡처사진

근간, 일부 지방에서는 직원의 월급에서 직접 “소비 촉진비”를 잘라내는 정책을 세워 강제로 민중더러 소비하게 함으로서 직접 백성의 돈 주머니에서 “돈 강탈”을 했다. 4월 8일, 호남 회화(怀化)에서 간부 직공더러 월급에서 이 부분의 소비권 금액을 잘라내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또한 특정된 시간내에 소비하도록 규정을 내렸다.

강제적인 소비 대상중에 “안정 유지” 팀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 무한 전염병 초기 귀주로부터 호북성 악주시에 천톤의 야채를 지원했지만 일부는 창고에서 썩었고, 일부는 공무원과 파출소에 후한 복지 혜택으로 주고, 소량만 시중에 유통했다고 드러났다. 2월 18일, 무한시 악성구 공안분국 봉황파출소 직원의 가족은 자기집에 나눠준 받은 과일과 채소를 자랑하는 동영상 올렸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많아 과일 세 상자를 친정에 가져갔다고 하면서 “누가 당신의 남편에게 간부가 되지 말라고 했나요?”

라는 놀라운 말까지 했다.

한 네티즌은 “간부의 집에서 썩어가는 것은 량식이지만 백성집에서 썩어가는 것은 시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은 집으로 가져간 유골이 자신의 가족 유골처럼 보이지 않아 매장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중 강안(江岸)구의 류 씨는 어머니 유골함 안에 남성 벨트의 버클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홍산(洪山)구의 인 씨는 그의 아버지가 사망 전에 틀니를 한 적이 없는데 유골함 안에는 세라믹 틀니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중공 고위관원, 중공당원들이라면 과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골회를 자기집 묘지에 묻어 자기집의 조상으로 삼고 제사를 지낼수 있겠는가?

무한 전염병중에서 하나의 사실이 증명되다 싶이 그것은 바로 중공은 종래로 정권의 안정성만 관심하지 사람의 생명따위는 경시하고 냉혹함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유전자는 어디에서 왔는가?

1959년~1961년간, 중국의 백성은 “3년 대기황”이란 불의의 재난을 겪었다. 대기황에 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안휘성 공안청의 전 상무위원회 인수성(尹曙生) 부청장은 2011년 중공당 매체 인민망에 《‘대약진’ 이후 무엇 때문에 대규모 동란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는 “대약진” 이후 전국에 대기황으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나 무엇 때문에 대규모의 동란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국가의 치밀하고 엄격한 사회적 통제 때문이었다.

“대약진”시기 안휘성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것은 부단히 “반혁명분자 진압”의 명의로 야만적인 사회 통제를 계속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57년 2월 22일, 안휘성(8면 계속)



“가면”을 벗기다

‘9평 공산당’은 세인이 중공을 관찰하기 어려운 깊은 유전자를 제시했다. “공산당조직 자체는 생산과 발명창조에 종사하지 않는다. 일단 정권을 얻은 다음 국가와 인민의 몸에 붙어서 인민을 조종하고 공제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를 공제해 권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한다. 동시에 사회 재부의 최초 래원을 독점해 사회재부의 자원을 흡수한다.”

“이 당조직은 하나의 거대한 사령(邪灵) 부체마냥 그림자처럼 중국사회의 매개 단원 세포 위에 붙어있다.” 이른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좋은것이 있으면 나쁜것이 있고, 선량한 면이 있으면 흑독한 사갈도 있다.

재난속의 매개 사람은 중공을 이탈하는 것만이 재난을 멀리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퇴출(3퇴)하면 당신은 선과 악에서 정의를 선택한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 광명과 희망의 씨앗을 심게된다.

신은 사람의 마음만 본다. 진심으로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퇴출 할 때 진명, 가명, 애명도 다 된다.

‘돌파프로그램’으로 해외 퇴당 메일 tuidang@epochtimes.com 에 등록해 ‘3퇴’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전염병은 눈이 있어 퇴당하면 위험에서 해탈된다

전세계에 이미 160 만 여명이 무한 폐렴에 감염되고, 9 만여명이 사망했다. 사망수치를 통계하고 분석해 보면 무한 폐렴의 목적은 분명하다. 중공사당의 담당 부서가 내부적으로 집계한 2 월의 사망자 명단에 기록된 사망자 중에 중공당원이 88% 를 차지하고 있었다.

명조미년, 전염병은 명조의 군대만 감염하고, 청군, 리자성(李自成)군대를 감염하지 않았다. 이번의 무한 폐렴과 비슷하지 않는가?

수치를 분석하고 개괄해보면 무한 폐렴이 전세계로 확산한 경로는 언제나 중공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 성시, 조직과 개인과 관련된다. 이 중공 병독(무한 폐렴)은 독으로 독을 치고, 중공의 도리로 중공을 다스린다. 그리고 병독이 지닌 중공과 비롯한 3 가지 특성을 살펴보자:

1. 은폐성: 중공은 수십년 이래 이른바 “도광양회” 때를 기다려 서방세계로 침투했다. 중공 병독(무한 폐렴)도 잠복기가 긴 특성으로 때를 기다리다 서서히 나타났다.

2. 미혹성: 중공은 정당으로 포장해 “무신론”을 선전했다. 중공 병독(무한 폐렴)도 똑같이 류행성 감기와 비슷하게 포장해 사람으로 하여금 방비심을 잃게 한다.

3. 교활성: 중공은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이(8면 계속)



시간의 경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의 근원, 그리고 행방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가?



시간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일정한 시기에 사망의 형식으로 이 공간을 떠나게 된다. 그 어떤 조대라도 종결되는 때가 있다. 사람이 죽을때 인류의 시간은 그로 말하면 정지 되고, 그는 자신의 업력에 따라 천당을 가거나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25 세 신강 이리 보조경찰 마융(馬永), 27 세 강소성 남경시 경찰 쉬호우(徐昊), 32 세 흑룡강성 경찰 왕춘텐(王春天), 38 세 절강성 항주시 경찰 왕이민(王益民), 39 세 하남성 정주시 경찰 판수평(樊樹鋒) 등 80 명 경찰, 보조경찰은 모두 중공 내부의 일부 317 명 무한 폐렴 방역인원 사망자 명단에 기록 됐다.

통계에서 방역인원을 모두 9 가지로 나눴다. 경찰(보조경찰 포함)은 그 중 사망수가 가장 많았다. 명단 중 소부분만 폐렴, 교통사고 등 의외사망으로 표기하고, 대부분은 과로사로 표기했다. 연령대는 대부분 40~50 대 이고, 명단 중에 무한 폐렴으로 인한 기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중공이 또 거짓

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중공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도 진실된 사망원인이 용납되지 않았다.

밍후이왕에서 파룬궁을 박해해 악보받은 사람들을 통계했는데 20 년래 공안 인원은 적어도 2436 명이 악보를 받고, 적어도 555 명의 가족이 연류됐다. 그들 중 1164 명이 악보받아 사망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중, 청년으로, 가장 힘이 세고 정력이 좋을 때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멈추지 말아야 할 때 정지됐다. 현재 중청년경찰들도 자신의 생명의 근원, 행방, 그리고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지 않겠는가?

현대 대부분 중국사람은 무신론으로 세뇌 받았지만 현실에서 살다 보면 아마도 아이가 놀라서 “혼을 잃어 버렸다” 혹은 부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존재 하므로서 우리는 적어도 사람은 령혼이 있다는 것만은 믿어야 한다. 만약 이것마저 믿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사람의 명은(8면 계속)

리발사 : 원래 이런 것이 었군요

무한 폐렴이 만연되자 리발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다. 2월 중순, 한 리발점이 가게를 오픈하자 나는 첫무리 손님이 되었다.

나 : 현재 전염병이 심한데 매일 적지 않은 손님을 접촉하면서 전염될까 걱정되지 않나요?

리발사 :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생계는 유지해야되니. 문을 열면 손님이 없을까봐 걱정되고, 손님이 많으면 감염될까봐 두렵고, 게다가 일단 나타나면 가게를 봉쇄 하는데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나 : 나는 9개 글자를 아는데 매일 성심껏 넘하면 당신의 면역력을 높여 줄수 있어 병독이 쉽게 당신을 감염할 수 없고 당신의 영업도 나날이 좋아질 것인데 시도해 보시겠어요?

리발사 : 어떤 9자 인데요?

나 : '9자 진언'이라고 부르고, 즉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眞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입니다.

리발사 : 국가에서 파룬궁을 연마하지 말라고 한것 같은데?

나 : 사실상 국가에서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강택민이 질투로 기타 상위들의 반대도 마다하지 않고 혼자서 저지른 일인데요. 그는 선전기구를 리용해 파룬궁에 먹칠하고, 이른바 북경 "천안문 분신자살"을 제작해 세인을 기편했어요. 현재 대만에서 10만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고, 지금까지 파룬궁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 졌어요.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볼수 있는데 중국 대륙에서만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현재 무한 폐렴은 파룬궁을 박해하여 응보받은 것이예요.

리발사 : 파룬궁을 박해해 보응을 받았다면 진원지인 북경에서 폭발해 야지 어떻게 무한이 되나요?

나 : 사람들은 진정한 원인을 모르고 있지요. 1999년 '7.20'전 무한 방송국장 조치진 (趙致眞)은 강택민의 파룬궁 박해를 따르기위해 악의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영상을 제작 했는데 감미로운 목소리와 풍

부한 감정을 담아 많은 유언비어로 조작한 이른바 "증거"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의거로 됐어요. 이 비방의 영상은 무한으로 부터 전국에 퍼져 무수한 사람들이 파룬불법 (法輪佛法)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와 증오때문에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할때 대부분 민중은 소리를 내지 않았고, 중공의 지시하에 무한의 공검법, "610", 정부, 사회구역 기층에서 모두 믿는데가 있어 잔혹하게 수련생을 박해했어요. 때문에 전염병은 최악이 깊은 그 곳에서 폭발해 무한과 무한 민중에게 큰 재난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파룬따파는 불가고덕 대법이어서 수련생은 모두 선량한 마음을 간직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부단히 선으로 사람을 일깨워주었지요. 바로 우리집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리발사 : 예, 말해보세요.

나 : 금년설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여 동생의 집에 머물었고, 그믐날 저녁, 활발한 초중생인 조카가 갑자기 기력이 없어하더니 열이 38도가 되는거예요. 온 가족은 당황해 어쩔줄을 몰라 하면서도 감염될까 두려워 감히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못했어요.

나는 동생과 매부에게 "아이더러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 (眞善忍好)'를 넘하게 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전에 나는 그들의 일가족에게 '3 퇴' (중공의 당단

대 조직에서 퇴출) 해 주었어요. 그들은 파룬궁에 대해 모두 바른 인식이 있었기에 조카는 넘하기 시작했고 넘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조카의 열은 내렸고 온 가족은 얼마나 기뻐하던지, 나는 성봉쇄로 인해 직장에 복귀 못 할까봐 급히 공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아이가 또 열이 난다고 하니 나는 동생에게 계속 '9자 진언'을 넘하고 믿음을 가져라고 전했어요. 동생은 동의했죠. 초 이튿날 오전, 나는 순조롭게 거주지에 도착했고 핸드폰을 켜자마자 동생이 전화와서 조카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외삼촌, 저 다 나왔어요!"

리발사 : 오늘 당신과 얘기를 나누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우리촌 간부와 당원들과 얘기하면 늘 뭔가 한층이 가려진 느낌이 들고, 그들은 언제나 들고 있거나 감추거나 암튼 그들은 늘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만 해요. 공산당이 로백성의 신앙자유와 언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나 : 그러면 당신도 가명으로 전에 가입했던 단, 대 조직에서 퇴출하시고, 자주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를 넘하면 꼭 건강하고, 편안할 것인데 동의 하시겠어요?

리발사 :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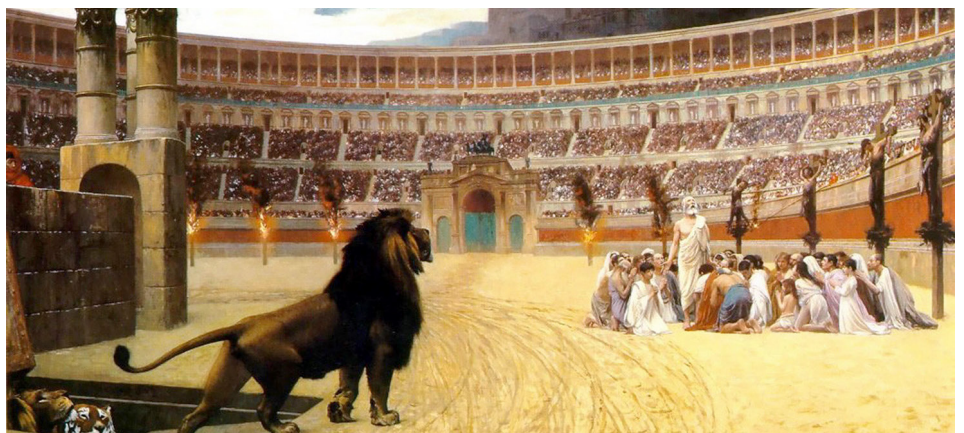


그림 이야기

'기독교 순교자 최후의 기도', 로마제국이 기독교 신자를 잔혹하게 탄압한 정경을 묘사 - 경기장 주위의 기둥에 왼쪽에는 화형을 당하는 기독교 신자, 오른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독교 신자, 중간은 한 무리 기독교 신자들이 맹수에게 찢기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거짓말을 믿고 기독교 신자 박해에 참여한 고대 로마인은 아주 빨리 보응을 받았다. 이듬해 전염병이 (후에 어떤 학자는 중증학질 이라고 인정했다) 폭발했다. 또 3년후 로마성에는 폭동이 일어나 로마 폭군 네로는 도망 도중에 자살했다.

法輪大法

真 善 忍

TRUTHFULNESS
ZHEN

COMPASSION
SHAN

FORBEARANCE
REN



채소농이 역병을 쫓아낸 신기한 경과

나는 하북성 당산시 란남현의 농촌 부녀이고 올해 50 여세이다.

2020년 음력설 후 무한 폐렴이 기세등등하게 만연 될때 나는 대봉안에서 일을 과도하게 해 그만 쓰러져버 렸다. 가슴은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했다.

나는 당산공인병원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척은 “병원의 호흡과 의사들은 전부 무한으로 지원갔 으며, 당산에도 무한 폐렴 병례가 나타났다.”고 했다.

나는 당산공인병원이 아닌 란남경동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아직 무한 폐렴 환자가 없기때 문이다. 검사 결과 예전에 걸렸던 대엽 폐렴 후유증이 고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유될지는 아무도 모 른다.

나는 대봉안의 농일이 걱정되고 손녀도 돌봐야 하기 에 거처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었지만 병원측 에서 신고라도 하면 강제로 격리될 수도 있어서 두려웠 다. 그때당시 나는 호흡이 매우 곤란했고 걸을 수도 없 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침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때 나의 친구가 나 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찼싼런하오 (眞善忍好) 9 자 진언을 넘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 녀도 몇 일전 밤에 갑자기 위장염이 발병하여 고열이 났

지만 병원에 가기 두려워 집에서 꼭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의 남편이 (파룬궁 수련생이다) 그에게 성심껏 ‘파룬따 파하오 (法輪大法好)’ 찼싼런하오 (眞善忍好)’ 9 자 진언 을 넘하면 병원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줬다.

그녀는 남편의 몸에서 수차례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생긴 기적을 보았기에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찼싼 런하오 (眞善忍好)’ 9 자 진언을 넘했다. 넘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튿날 깨어나니 열도 내렸고 위장염 증상도 다 사라져 과연 다 나았다고 한다.

그후, 친구의 남편은 나한테 병문안 오면서 “이 비상한 시기에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찼싼런하오 (眞善忍好)’ 9 자 진언을 넘하세요, 대법 사부님을 믿고, 파룬궁이 당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라고 말 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9 자 진언’ 을 넘하기 시작했다.

나는 줄곧 마음으로 ‘9 자 진언’을 넘하고 또 넘하면서 신기한 일이 나타났다: 순식간에 호흡이 특히 순조롭더 니 한갈래 강한 열기가 바람처럼 나의 몸으로 들어 왔다. 대법 사부님께서 나의 병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 했다. 순간 신체는 매우 가벼워졌다.

파룬궁 사부님께서 나한테 건강한 신체를 주셔서 감사합 니다!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찼싼런하오 (眞善忍好)!

과거의 에이즈 환자가 기적처럼 회복하다

나는 자유직업자이고 음식점과 술집을 운영했었다. 2014년, 나는 도박에 빠지면서 마약도 피우기 시작해 종일 흐리멍덩하게 인생을 보냈다.

2015년 3월초, 나는 몸이 불편함을 느꼈고 늘 고열이 났다. 매일 병원에서 링거를 맞아도 여전히 고열 39도 이하를 내려가지 않았다. 최후에 “에이즈” 확진을 받았고 그날 밤에 바로 중환자병실에 입원했다.

당시 병증이 매우 심각했고 폐 부분에 온갖 물집이 두드러져 의사는 연이어 3번이나 나에게 위급통지서를 내렸다.

어릴적 친구가 나를 보러 문안왔다. 그 친구는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는 나의 귓전에서 조용히 나더러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를 념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는 정교하고 네모난 호신부 카드를 테이프로 나의 손안에 붙여줬다. 몇 시간 후 나는 조금 정신이 들었다. 가족은 나에게 모모가 널보러 다녀 갔다고 알려주면서 나더러 호신부의 9자를 념하라고 부탁했다.

나는 어릴적 그 친구가 나에게 해 좋았던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를 념했다. 몇 번 념한 후 나는 조금이나마 잘수 있었다. 사흘째 저녁에 나는 성심껏 소리 내어 읽었더니 그날 밤에는 단잠을 잘수 있었다.

그날 밤에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적지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열심히 내몸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아주 편안했다. 얼마 지나서인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나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고 머리도 전보다 훨씬 맑아졌음을 느꼈다. 아침에 의사가 순찰할때 의아해하며 “오늘은 어찌 이렇게 정신이 맑은가요? 무슨약을 먹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당신이 처방해준 약만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의 병증은 나날이 호전됐다. 그 친구가 또 한번 나를 보러 왔을 때 그는 나에게 “자비하고 위대하신 리홍지 사부님께서 다른 공간에서 너의 병을 제거해 주셨어.”라고 말했다.

나는 매일과 같이 ‘9자 진언’을 성심껏 념했고, 정말로 성심을 다 해서 념했다.

일주일이 안돼서 나는 중환자병실에서 나왔고 호흡기도 비색호흡기로 전환했다. 더 후에는 비색호흡

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한 간호사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병증상과 같은 중환자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모두 6명이 있었는데 그중 5명이 이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만 명이 길어 완치됐습니다.”

5일 뒤 나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 의사도 놀라하면서 나처럼 폐부에 물집이 가득 차고, 폐기관이 딱 막혀 심지어 폐부분이 전부 하얗게 된 증상이면 열이면 열이다 병원을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환자도 나보고 신을 만나명을 건졌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신을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 일주일이나 지나 나는 퇴원했다. 지금까지 이미 5년이 지났지만 나의 신체는 줄곧 아주 건강하다.

어린 손녀의 열이 순식간에 내리다

2020년 3월 29일 오후 2시, 2살반인 어린 손녀가 갑자기 발열해 체온이 39.7도로 올라갔다. 손녀는 몸이 나른해져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는 당시 당황한 나머지 어쩔바를 몰라 아이의 귓전에 “아가야, 우리 함께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를 념하자.”라고 말하며 부단히 아이를 불러 깨웠다. 아이 얼굴이 열이 올라 빨갛게 되자 다시 체온을 재보니 40도로 치솟았다. 나는 손녀를 깨우려고 애썼고 손녀에게 “우리 사부님께 향을 올리자구나.”라고 하자 손녀는 혼미한 상태에서 머리를 끄덕이고는 또 머리를 한쪽으로 떨어뜨렸다.

평소에 사부님께 향을 올릴때 손녀가 곁에 있으면 늘 손녀의 손에 향을 쥐우고, 내가 불을 붙이곤했다. 나는 똑같이 향을 그의 작은 손에 쥐여 주자 손녀는 즉시 정신을 차리더니 나를 따라 작은 두손을 모아 허스 하면서 “사부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부님께 향을 올린다음 나는 손녀를 품에 껴안고 10분도 안돼 손녀는 바닥에서 놀겠다고 했다. 손녀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바로 사부님께 “사부님, 감사합니다, 제자는 또 사부님께 수고를 끼쳤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6시넘어 저녁밥을 먹을때 손녀는 죽을 작은 한 그릇, 그리고 감자와 계란을 먹었다. 7시 아들이 손녀를 데리러 왔을때 손녀는 이미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우리는 또 한번 따파(大法)의 초상함과 신기함을 견증했다.

한개 오랜 역사를 가진 수련대법으로서 파룬따파 (法輪大法) 의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는 오래전부터 중서방 의학계의 주목을 가졌다.

1998년 북경, 무한, 대련과 광둥성의 의학계 전문가들은 3만여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의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파룬궁 수련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효과가 98%로 나타났다.

1998년 11월 10일, <양성완보 (羊城晚报)>는 <노소가 모두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제목으로 몇곳의 5000명이 참가한 파룬궁 대형 아침연공을 보도했다. 그 보도는 93세 노인과 2살어린 애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진이 실렸다.



2016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공식망에서 한 논문을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 했다: 파룬궁수련은 암증을 호전 혹은 완쾌시킨다.

실수로 84 소독수를 마시다

얼마전에 무한 폐렴이 창궐할때 민중들은 두려움에 빠져 사람마다 위기를 느꼈다. 이모의 사위는 음료수 병에 84 소독수를 담아 문어귀에 놓고는 소독수라고 여러번 귀뜸했다.

결국 이모의 남편은 소독수를 음료인줄 알고 크게 2모금이나 마셨다. 당시 말을 할 수 없고 토하기만 했다. 이모의 마음 가짐은 견정했다, 남편에게 빨리 “파룬따파 하오 (法輪大法好) ’ 찌싼련하오 (眞善忍好) 를 넘하라고 말했다. 그는 성심껏 여러번 넘하여 결국 위험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졌다.

작은 의아기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따파 또 파룬궁이라 하며, 1992년 5월 13일에 리홍쯔 (李洪志) 선생이 장춘에서 전해 온 불가 상승 (佛家上乘) 수련 공법이며 ‘진, 선, 인 (真, 善, 忍)’을 근본지도로 함과 동시에 5 조의 느슨하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파룬따파는 사람 마음을 정화하고,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다. 백성들 중 입과 귀로 전하여, 아주 빨리 집집이 알게되어 중국의 대강남북 (大江南北) 에 널리 전해지고 전 세계에 전해졌다. 파룬따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세계 각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파룬따파의 주요 서적 <전법륜 (转法轮)>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국문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문 서적이다.

제 1 장 공법
佛展手法
(포잔첸서우파)



제 2 장 공법
法轮桩法
(파룬장파)



제 3 장 공법
贯通两极法
(판통량지파)



제 4 장 공법
法轮周天法
(파룬저우토펬파)



제 5 장 공법
神通加持法
(선통자차파)



4.3 만종의 무증상 감염자

중공은 전염병 변곡점을 조작해 “0”으로 만들고 강제로 복직하고 생산을 시작해 전염병이 이미 끝났다는 환각을 주었으며 중공이 전염병에서 싸워 이겨낸 가상을 조성했다.

상해 화산병원 감염과 주임 장원홍(张文宏)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무한 폐렴 병독은 올해 여름에도 끝날 수 없는데 지금 가장 큰 위험은 무증상 감염자라고 단언했다. 홍콩 《남화조보(南华早报)》의 보도에 따르면 중공정부 내부 문건에서 “2 월말까지 4 만 3000 명 무증상 양성인 사람을 확진환자(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내부 통계에서 매일 확진자수는 얼마인가?

무엇 때문에 무한의 봉쇄를 해제했으나 무한, 북경에 대한 공제는 점점 더 엄격해 지고, 흑룡강 수분하시에 방창병원을 지었겠는가?

사실 국내 전염병 통제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단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하지 않고 공개 하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옮겨 계속해서 중국사람과 국제사회를 기편했을 뿐이다.

내부 관련자가 말하는데 지금 국내 내부 통계에 따르면 매일 확진자수는 2500 명이 넘는다고 한다.

(2 면의 계속) 현과 서성현 두 현 접경지에서 농민 400 여 명이 “먹을 것과 토지를 달라.” “지금의 정부는 인민의 정부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두 현의 공안 경찰과 성 공안청은 무장 경찰을 파견하여 그들을 포위하고 총격전을 벌여 그 자리에서 49 명을 사살하고, 34 명을 체포했으며 10 명이 투항했다.

학자 송용이(宋永毅)가 편집한 〈중국대약진 _ 대기환 수치참고〉의 중국 공안부의 극비 보고에 따르면 1957 년에만 수백 건의 중국 농민들이 굶주림으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발생했던 이른바 ‘반란’이 있었다. 이때 중국공산당 정규군이 기관총으로 무장 진압에 나섰다.

3 면의 '시간의 경고' 의계속

하늘에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것에 따라 증가되거나 혹은 감소된다.

경찰이 그 어떤 핑계를 대든지 혹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상급의 내린 틀린 지시를 따랐든지 결국 본인이 악행을 하는 것이기에 그 결과를 결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만약 영혼이 바른 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떨어져 그 죄값을 갚거나 심지어 파멸 된다.

신은 세인에게 21 년이란 시간을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할 때 중공의 사악을 똑똑히 간파하고 그것을 이탈하도록 기다렸다. 아직도 인식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직접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던 모든 경찰들이 하루빨리 정신차릴 것을 호소한다. 여기서 뉘우치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회를 놓친다.



3 면의 '전염병은 눈이 있어 퇴당하면 위험에서 해탈된다' 의계속

뛰어났다. 중공 병독(무한 폐렴)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도리로 그 사람을 다스린다”. 처음 두번은 음성으로 표현하다가 세번째 측정에서 갑자기 양성으로 돌변한다, 심지어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 후에도 “재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종적을 잡을 수 없게 한다.

간단하게 말해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는 말을 들은지 벌써 몇 년이 된다. 하늘의 손은 그림자도 없고, 형태도 없지만 하늘이 그를 멸하려고 하면 중공은 무슨 덕으로 피할 수 있겠는가? 이 력사는 이미 최후의 한막에 들어 섰는데 우리 매개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